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 사랑은

말보다 먼저 머무는 법을 배운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숨결처럼  
진리의 성령께서는

달한 마음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시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밤마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영혼 안에 작은 부활의 빛으로 켜진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이는 마침내 알게 된다.

주님께 머문다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께  
조용히 마음을 여는 일임을.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5/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0

현재 참가 인원 - 0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38    예물 준비 성가 : 219, 216    성체 성가 : 165, 175    파견 성가 : 238

부활 제5주일 (5/3)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63명	56명	208명	122명	45명	494명



## 캔터베리의 성 안셀모



“아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소망을 하늘에서 가질 수 없다. 한 사람의 바람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바람과 각 사람의 바람은 또한 하느님의 바람이 될 것이다.”(성 안셀모, 『Opera Omnis』 편지 112 중)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으로 대표되는 「스콜라학의 아버지」 성 안셀모(1033~1109)는 계시와 이성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리스토텔레스파의 변증법에서 이용하는 이성주의를 신학에 성공적으로 도입시킨 첫 번째 인물로 꼽힌다. 완전한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개념에서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 『독어록』(Monologium)을 지은 그는, 이를 통해 후대의 둔스 스코투스, 데카르트, 그리고 헤겔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신곡』의 작가 단테는 『신곡』 「천국편」(Canto XII)에서 태양권 안에 있는 빛과 힘의 영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안셀모를 언급할 정도였다. 또 『동정 잉태와 원죄』(De conceptu virginali et peccato originali)와 같은 저서들을 통해 “마리아는 성부와 같은 성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더욱 순결하고 티 없이 깨끗하며 공경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후대 마리아론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다. 그런 이유에서 성 알폰소와 함께 4대 마리아 박사 가운데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아오스타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안셀모는 클뤼니 수도원과 프랑스의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059년에는 노르망디 베크(Bec)의 베네딕도회 수도원에서 공부했다. 양친이 모두 사망한 이후 1060년 수도원에 정식 입회하여 엄격한 수련과 병행해서 문법학과 논리학 등 정

규 과정을 배웠으며, 히포의 아우구스티노와 보에티우스 등 다양한 학자들의 저서를 섭렵하는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 1067년 수도원 학교 교장이 된 안셀모는 많은 작품을 저술하고 윤리·종교 교육에 힘씀으로써 학교를 명문교로 발전시켰다. 특히 1078년 수도원 원장이 된 후 수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몰려들자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 곳에 수도원을 건설했다. 또 영국까지 명성이 알려지면서 1093년에는 영국 왕 윌리엄 2세에 의해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됐다.

안셀모는 이때부터 적잖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며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는 성직자들을 직접 임명하고 교황과의 연락을 제한해 온 영국 왕의 교회 직무 간섭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클뤼니 수도원의 개혁 정신을 따라 교회는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하느님 계명의 지배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영국 왕과의 긴장,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위한 투쟁, 세속화된 성직자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 등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는 이로 인해 영국 주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곤경에 처하면서 결국 영국 성직 서임권 논쟁의 여파로 망명길에 올랐다. 두 번이나 망명을 떠났던 안셀모는 그 후 영국 왕과 교황이 한자리에서 협상을 벌이도록 했고, 여기서 영국 왕에게 충성 서약은 하지만 왕으로부터 서임은 받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마침내 1106년 영국으로 귀환한 안셀모는 교회의 자유 보호에 계속 힘쓰는 한편, 성직자들의 생활을 수도원 생활에 기초한 “수도적 삶”의 방향으로 돌리는 데 노력했다. 만년에는 중병에 걸려 사망하기 전 한 달 동안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었던 그는 1109년 성주간 수요일에 선종했다. 그의 사후 캔터베리 대성당에 모셔진 그의 묘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도리데니오 수도원장은 안셀모

를 두고 “그의 신앙은 극히 깊었고 예지는 뛰어났으며, 그의 행위는 거룩하고 마음은 경건했으며, 그의 웅변은 유창하고도 생활은 남의 모범으로서 충분하였다. 그는 전력을 기울여 사업을 행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했으며 모든 덕에 있어서 출중하였다.”고 칭송했다.

안셀모는 철학계에 남긴 업적 외에도 뛰어난 영성가였고, 또 사목자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애썼다. 신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400여 통에 달하는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지며, 자신의 명상을 기도와 시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철학 및 신학 저서들은 앞서 언급된 대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데, 신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저서는 『왜 하느님은 사람이 되셨는가?』(Cur Deus Homo)이며, 이 책은 육화와 구원에 관한 교리 발전에 신기원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성령의 유출론』(De Processione Spiritus Sancti)은 아우구스티노의 『삼위일체론』에 따라 “성자에게로부터도 성령이 유출된다.”는 서방 교회의 이론이 잘 설명된 저서로 알려져 있다. 안셀모는 1720년 교황 Pope Clement XI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됐다.

**공지 사항**

**1 성모의 밤 행사 안내**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아래와 같이 **미사와 함께 하는 성모의 밤**을 봉헌합니다.

- 일 시 : 5/15(금) 오후 7시
- 장 소 : 성전
- 대 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

\* 화분 봉헌 단체 대표들께서는 리허설을 위해 시작 15분 전에 화분과 함께 성전 앞 로비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날 5/15(금)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구역 음식 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5/17(주일)
- 음식 봉사 : Sammamish 구역
- 메뉴 : 콩나물 오징어 떡밥

**3 배드로회 월례 모임**

- 일시 : 5/17(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실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노드 4번째 모임**

- 일시 : 5/17(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네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새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6월에 시작하여 7개월의 준비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가까운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 교리반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리 신청서는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리엔테이션
- 일시 : 5/17(주일) 오전 10:00 교중 미사 후
- 장소 : 101호실

**6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mar티노 justin123yi@gmail.com

**입당송**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8,5-8,14-17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화답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2독서** ..... 1 베드 3,15-18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4,15-21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우 리 를 의 정 성**

**[교무금]** 양요한 양성림 최연범 이지연 최수영 이천우 김재호 노찬규 김경자 유경중 최정필 천기전 정순도 김영환 차상철 황길수 정승권  
 곽세종 반성환 이경원 조항영 김태자 최민정 양대석 김요셉 조승희 오영실 장승연 Thomas Chun

**[교무금 Push Pay]** 김형근 성효진 유현주 서은지 황현선 강보조 이상철 윤성욱 장경화 오영주 김두남 박민수 윤법영 강철권 정재열  
 이종일 주성택 최금희 **[감사헌금]** 전문주 이명희 정순도 이용명 익명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중학생 Encounter Registration	-
\$6,509.00	\$8,510.00	\$4,775.20	\$610.00	\$16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5/28/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26년 노동절 담화

#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1베드 5,8)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선의를 가진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수단이 아닌 존재로서 노동을 위하여 오랫동안 연대해 온 결과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오늘, 저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기뻐합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교회적이고 영성적인 고민과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후변화가 현시대에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후와 환경과 노동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와 환경 위기 앞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간과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시장 경제’ 논리가 우리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과 처우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폭염과 한파, 홍수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해 물질 산업을 저개발국으로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공해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윤리 감각조차 없는 듯합니다.

한편,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오직 하느님의 선물인 지성을 통한 전인적 성장과 공동선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경우,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을 경제

논리로만 이해하려는 현 구조는 노동자를 ‘효율성의 노예’나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종속적 노동자’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용에는 무관심하고, ‘복지’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은 단순히 생계 비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필요와 더불어 지성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생활의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된 전인(totus homo)에 대한 봉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자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존엄에 대한 존중,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안녕을 위한 고용의 중요성, 고용 안정과 공정 임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제 5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5항). ‘새로운 사태’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선의를 지닌 이들과 윤리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형제애’를 지닌 ‘공동 책임자’로서 가난하고 약한 이를 ‘굶주린 사자’(1베드 5,8 참조) 앞에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연대로, 불확실한 미래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축제인 노동절을 축하하며,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수호자 성 요셉,  
노동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6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주 영 주교